

한·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 계기 양자 경제협력 확대 추진

- 2019년 6월 말 한·인도네시아 정상·장관급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됨.
 - 2019년 6월 28일 G20 계기 일본 오사카 한·인니 양자 정상회담, 6월 26일 한·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회의, 6월 28일 국토교통부 부장관 인니 방문, 7월 1일 한·인니 외교부장관 면담 등 양국 간 정상 및 장관급 회의가 연이어 진행됨.
- 금번 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주력 산업(석유화학·자동차·철강) 투자, CEPA 협상 가속, 인프라 협력 등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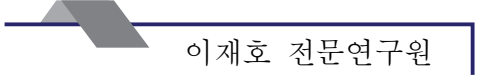
표 1. 최근 한·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 내역

주요 회의	개최지	일시	주요 논의 사항
정상회의	일본(G20)	2019.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 협력: 잠수함, 전투기 · 주력 산업 협력: 석유화학, 자동차, 인프라 · 양자 CEPA 협상 가속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2019.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진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 양자 CEPA 연내 타결
국토교통부	자카르타	2019.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시장 진출(경전철, 토목, 스마트 시티 등), PPP 협력 · 수도 이전 협력
외교부	서울	20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건립 경험 공유

자료: 각종 보도 자료를 활용해 필자 작성.

- 상기 정상 및 장관급 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한국 주력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논의로 볼 수 있으며,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성과 사업 의제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투자자는 對베트남 투자에 비해 아직 낮은 비중이 작지만, 최근 석유화학·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양국 간 관련 산업의 추가 협력이 예상됨.
 - 교역('18): 베트남(680억 달러, 43%), 인니(199억 달러, 13%), 싱가포르(197억 달러, 12%)
 - 투자('18): 베트남(31억 달러, 52%), 싱가포르(15억 달러, 26%), 인니(5억 달러, 8%)
 - * 대아세안 교역 및 투자 비중
 - 2018년 연말 약 4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부문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¹⁾, 최근 자동차 부문에서도 최대 연간 25만대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 협의가 진행 중임.²⁾

-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7차 협상까지 진행된 후 상호 입장 차이로 추가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2019년 2월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후 4월에 8차 협상을 진행함.
-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존 한·아세안FTA 및 RCEP를 넘어서는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RCEP를 통해 논의가 상당 진전된 규범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함.
- 또한 협력 분야에서 혁신적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CEPA 협상과 더불어 ‘한·인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통해 양국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함.



이재호 전문연구원

1) 한국경제(2018.12.17.) 「한인도네시아에 유화 단지…베트남에 복합단지, 신동빈의 新남방전략 탄력받았다」
2) 매일경제(2019.4.1.) 「현대차 인니 공장 설립 박차...동남아 전진기지 구축 나서」